

전남 곳곳이 축제장...가정의 달 5월엔 고민 말고 남도로

애견인이라면 '진도개 페스티벌'
담양대나무축제 죽녹원 야간개장
고흥항공축제·해남공룡대축제 등
볼거리·놀거리·즐길거리 가득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 5월이다. 어디로 가야할까. 가정의 달을 맞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뒤지는 가족들을 위한 축제가 전남 곳곳에서 펼쳐진다. 진도에서는 오는 3~4일 진도개테마파크 일대에서 '진도개의 고향, 테마파크에서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제 10회 진도개 페스티벌'이 열린다. 4일에 열리는 우수 진도개 콘테스트와 반려견 달리기·미로찾기·기다려 대회 등은 반려견과 함께 찾는 여행객들에게 즐거운 체험 기회다. 테마파크 썰매장, 진도개 공예품 만들기 등 참여·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보성에서는 3일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7일까지 '제 47회 보성다향대축제'가 열린다. 독특한 차(茶) 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소

리축제, 철쭉문화제, 전국요트대회 등의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구례에서는 3~5일 섬진아트홀 등에서 가야금 음악의 전승·보존·보급 등을 위한 '제 22회 전국 가야금경연대회'가 열려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고흥에서는 4~6일 '지구인에서 우주인으로'를 주제로 한 '제 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가 열린다. 최초 위성발사체 나로호 실물이 전시되고 누리호 실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특별전시관이 운영되며 150여종의 축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어린 자녀를 둔 가족단위 여행객들이라면 4~6일 해남공룡박물관 일대에서 펼쳐지는 '해남 공룡대축제'는 반드시 챙겨야 할 축제다. '땅끝해남! 공룡이 살아있다!'를 주제로 공룡가족음악회·버블댄스 등 공연, 공룡화석지를 둘러보는 공룡발자국 탐험대 체험 프로그램과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공룡가족올림픽, 공룡달고나·공룡비누·공룡풍선·공룡부채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공룡 놀이터 등이 조성돼 하루종일 즐길 수 있다. 신안에서 오는 11~12일 열리는 '삼막 예술축제'는 '비금도에서 즐기는 산페인과 막걸리의 달 보드레한 만남'이라는 슬로컨텐츠 산페인과 막걸리 시음, 비금도·프랑스 음식문화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신안군은 지난 1851년 비금도에 난파된 프랑스 선적 나르발호 사건을 재조명하고 신안과 프랑스의 문화예술 교류·우호 증진 등을 취지로 행사를 마련했다. 비금도 이세돌 박물관(11일), 자은도 라마다 호텔(12일) 등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치러진다. 무안에서는 오는 11일 제 21회 초의선사탄생문화제가 열려 초의자 제다체험, 초의선사 소장유물전 등이 열리고 담양에서는 제 23회 담양 대나무축제가 11~15일까지 죽녹원 일대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죽녹원 야간 개장도 이뤄진다. 곡성세계장미축제(17~26일), 제 20회 영산포 흥어축제(24~26일), 제 23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꽃길축제(24~26일)도 5월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둘러볼만한 축제다. 지난달 19일부터 매주 금·토요일 진행중인 '강진 불금불과 시즌 2' 행사도 강진 병영시장 일대에서 열려 먹거리(병영불고기, 병영불고기피자, 불고기파스타), 살거리(할머시장터, 아트마켓), 놀거리(떡메치기, 병영자전거여행), 볼거리(이야기투어, 포토존, 하멜전시관), 즐길거리(EDM, 감성캠핑) 등이 가득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2026학년도 국립의대 정원 200명 요청

대통령실·복지부·교육부 등에 공문...9~10월께 추천 대학 결과 보고

전남도가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과 관련, 전남권역 국립 의대 정원으로 200명을 뽑을 수 있도록 정원을 배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의대 증원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전남 국립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도는 지난 1일 '2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예정된 교육부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발표 과정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반영해 '2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 방침도 밝혀달라는 것이다. 전남도는 공문에 대통령 민생토론회와 정부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이 발표되고 '전남도에서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라 의대 정원을 제출한다고 적시했다. 전남도는 의대 정원을 요청하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공모 절차를 거쳐 의대 신입생을 선발할 대학을 선정해 정부에 추천할 계획도 재차 밝혔

다. 전남도는 오는 9~10월께 추천 대학에 대한 선정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남도동부지역본부는 이날 순천시 지역 사회단체의 '서부권을 위한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절차 촉구' 기자회견과 관련 호소문을 내고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국립의대 유지를 위한 도민 역량을 하나로 모으자"고 호소했다. 호소문에서 동부지역본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전남도의 발표에도 지역 상생의 길은 모색하지 않고 갈등만 키워가고 있다"며 "지금은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도민과 관련 기관·단체에서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각 관련 부처가 함께 검토해 가장 강력한 정부 담화문 형태로 전남도에 요청하는 데도, 다시 정부에 대학 선정을 넘기면서 시간을 허비하면 의대 신설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순천시 지역 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모 방식은 도의 월권행위이자,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어린이날을 앞둔 2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에서 어린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즐겁게 뛰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초등 평균키 10년생 男 4.3cm 女 2.8cm ↑...성장속도 2년 빨라져

10년 전보다 한국 초등학생(7~11세) 남자와 여자의 평균 키가 각각 4.3cm, 2.8cm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고점기는 남자 14~15세, 여자 13~14세로 나타나 10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성장 속도가 약 2년 정도 앞당겨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사이코코리아 성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

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4~12월 한국의 만 7~19세 동·청소년 1118명(남자 571명·여자 547명)을 대상으로 인체치수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난 6차 조사(2011~2013년) 때와 비교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키는 남녀 모두 증가해 체격이 커지는 20~84세 성인 대상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교 연령(7~11세)의 경우 평균 키는 직전

조사보다 남자 4.3cm, 여자 2.8cm가 커졌다. 중학생 평균 키는 남자 7.4cm, 여자 3.3cm, 고등학생 키는 남자 2.2cm, 여자 1.9cm 커졌다. 성장 고점기는 6차 조사에 비해 남자는 16~17세에서 14~15세로, 여자는 15~16세에서 13~14세로 변화했다. 10년 전보다 성장 속도가 약 2년 정도 빨라진 것이다. 평균 몸무게는 남녀 모두 증가했다. 초등학생 평균 몸무게는 남자 3.0kg, 여자 1.1kg 증가했고, 중학생은 남자 5.1kg, 여자 1.3kg, 고등학생은 남자 4.4kg, 여자 2.8kg 늘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내년 의대증원 규모 1489~1509명

교육부·대교협, 대입전형 시행계획 공개...2026학년도 2천명 예상

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 32곳 가운데 31곳이 내년 모집인원을 확정하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1489~1509명으로 정해졌다. 내후년인 2026학년도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증원 규모가 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대는 증원분의 50%인 38명이 늘어난 163명을 뽑고, 조선대는 증원분 100%인 25명이 늘어난 150명을 선발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상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2일 공개했다. 여기에는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31개 대학이 포함됐다. 다만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아직 모집인원도 확정되지 않아 이번 취합 대상에서 빠졌다. 증원분이 반영된 31개 의대의 내년도 증원 규모는 총 1469명이다. 모집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차의과대학(현 정원 40명)의 경우 증원분이 40명인데, 증원분의 최소

인 50%(20명)만 뽑을 경우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489명이 된다. 차의과대학이 증원분의 최대인 100%(40명)를 모두 모집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509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모집 인원은 현재 3058명에서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모두 증원분의 50%만 모집한다. 강원대는 42명을 늘려(당초 증원분 83명) 91명을, 충북대는 76명(증원분 151명)을 늘려 125명을 모집한다. 경북대와 충남대는 각각 45명(증원분 각 90명)을 늘려 155명씩 모집한다. 경상국립대는 62명(증원분 124명) 증가한 138명, 전북대는 29명(증원분 58명) 늘어난 171명, 제주대는 30명(증원분 60명) 늘어난 70명을 선발한다. 부산대와 전남대는 각각 38명(증원분 75명) 늘어난 163명을 뽑기로 했다. 반면 조선대(25명 증원) 등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모두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미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주세요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동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